

종교성이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 비교*

한 내 창

원광대학교

〈요 약〉

필자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종교성과 사회적 태도 간 관계를 다루는 경험적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분석결과 두 변수군(群) 간의 낮은 관계가 확인되었다. 필자는 이것이 전세계적인 세속화의 경향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한 종교성의 결과라 판단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판단을 유보해 왔는데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사회총조사 자료(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콘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함)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세속화의 흐름이 보편적 현상인지(세속화 가설) 아니면 우리문화의 독특한 특수성(특수성 가설) 때문인지를 검토하였다. 분석에는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이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잠정적으로 세속화 가설보다는 특수성 가설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험적 자료에서 발견된 종교성과 사회적 태도 간 낮은 관계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6개국 자료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도 종교성과 사회적 태도 간에는 매우 높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속화의 공간적 보편성은 '부분적으로' 거부되었다. 그러나 본연구가 분석한 자료는 횡단적 자료이기 때문에 각 사회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세속화의 시간적 차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핵심 주제어: 종교, 종교성, 세속화, 사회적 태도, 성태도, 낙태

* 이 연구는 2010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I. 이끄는 말

필자는 지난 10여 년간 개인들의 종교성이 그들의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관심을 가져왔다. 종교적 가르침의 핵심이 신념과 가치이고, 또 그러한 신념이나 가치는 친사회적(prosocial) 행동이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종교적 성향을 알면 그들의 사회적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이러한 기대를 입증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필자가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하여 분석한 국내의 경험적 자료들은 대부분 아쉬운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개인들의 태도와 행동에 그들의 종교적 성향(태도 및 행동)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리기에는 그 관계의 정도가 너무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추론하여 왔다. 하나는 세속화의 흐름이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고등교육을 통해 세속적이고 범세계적(cosmopolitan)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종교적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자료에서 확인된 종교적 성향과 사회적 태도 간 낮은 관계의 정도는 이러한 세속화의 틀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이를 세속(일반)화의 가설이라 이름붙이겠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종교적 풍토이다. 상당히 현세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종교를 개인과 가족의 삶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성향은 매우 세속화되어 있고 실용적이다. 종교의 문을 통과하면 경건하고 엄숙해지지만 그 문을 나서면 종교가 부과하는 굴레를 쉽게 벗어던진다.¹⁾ 종교적으로 매우 열성적이면서도 세속적 삶을 위한 도구로 종교를 이해하는 관점이 우리의 문화적 풍토이다. 따라서 종교적 가치관과 세속적 태도가 독립적인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거꾸로 세속적인 삶에서 종교적 태도나 행동에 집착하는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편이다.

전자의 관점을 세속(일반)화의 가설이라 한다면 후자는 특수성의 가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속화의 물결은 범세계적이고 그래서 이 세속화 가설이 옳다면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교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고, 종교성과 사회적 태도 간의 관계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만약 특수성의 가설이 옳다면 우리나라의 경험적 자료들이 보여준 비교적 (a) ‘높은 종교성 정도’와 그리고 (b) ‘낮은 종교성 - 사회적 태도 간 관계’는 우리나라 특유의 풍토를 반영한 것이라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은 입증할 수 없는 명제로 필자에게 다가와 있었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세계 36개국에서 실시한 2008 사회총조사

1) 한내창, 『종교성과 타종교와의 결혼 허용도』, 『한국사회학』 제46집 1호(한국사회학회, 2012), pp.130-155.

(General Social Survey) 자료²⁾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자료를 분석하여 그 동안 국내 자료에 기초하여 추론하였던 명제들을 세속(일반)화와 특수성의 가설로 집약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필자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종교성이 다양한 사회적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그 동안 경험적 연구에서 다루어온 주제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표 1>과 같다. 국내에서는 종교(성)이 개인들의 사회적 태도나 행동을 다루는 연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³⁾ 구미중심의 경험적 연구들에 기초하여 가설을 도출해내고 국내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전체적인 결론은 서구문화에서 설정한 종교(성)과 사회적 태도 및 행동 간 인과모델들의 설명력이 우리문화에서는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몇 가지 사회적 태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간략하게 논의해보기로 한다: (1) 생활만족도, (2) 성태도(혼전성수용도와 혼외성수용도), (3) 낙태문제(기형아낙태허용도와 빈곤낙태허용도), 그리고 (4) 종교간결혼수용도.

<표 1> 그 동안 필자가 경험적 연구에서 다루어온 주제

종속변인	구체적인 종속변인의 예
사회윤리관	시험부정행위, 공중도덕, 성도덕, 탈세의도 등
친사회적 행동	봉사, 준법, 신의 등
사회적 태도	무규범성, 낙태, 순결, 이혼, 음주흡연 등
삶의 질	정신건강, 생활만족도, 가정화목도, 건강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정신건강	불안감, 우울증, 만족도 등
사회적 관용도	타종교 관용도, 단군숭배, 조상 제사, 타종교와의 결혼허용도 등
성태도	혼전·혼외 성수용도, 동성애 성수용도 등

생활만족도: 필자는 2005년도에 우리나라 중소도시에서 확률표집에 기초하여 수집한 성

2) 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콘소시움에 참여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총 34개국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조사대상 국가들은 III장 조사방법을 참조할 것). 그런데 동독(독일에 포함되는데 독립된 자료 세트를 이루고 있음)과 북아일랜드(영국에 포함되는데 독립된 자료세트를 이루고 있음)가 포함되어 총 36개 자료 세트가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36개국이라 표현하겠다.

3) 사회적 태도의 연구에서 신봉종교를 분석에 도입하는 연구들도 간혹 있다. 그러나 필자처럼 다차원적으로 측정된 종교성이 사회적 태도 및 행동을 설명하는 연구모델을 본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인남녀의 자료를 이용하여 종교성 변인들이 ‘주관적삶의질(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⁴⁾ 연구모델은 폴너(Pollner, 1989)⁵⁾ 등의 횡단적 연구, 윌릿츠와 크라이더(Willits & Crider, 1988)⁶⁾의 종단적 연구, 그리고 버긴(Bergin, 1983)⁷⁾과 위터 등(Witter, Stock, Okun, & Haring, 1985)의 메타분석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 문화에서 종교성은 개인들의 주관적 삶의 질(생활만족도 등)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여덟 개의 종교성 변인을 비롯하여 네 개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공동으로 설명한 생활 만족도 변량은 7%이었고, 신봉종교, 신앙열성도, 그리고 신앙경력이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비종교인들에 비해 종교인들이, 그리고 신앙경력이 길수록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2년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험적 연구⁸⁾에서는 신봉종교가 주관적 삶의 질(심리적 복리)⁹⁾ 변량을 4% 정도 설명하였다. 그리고 2001년도에 중소도시에서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14개의 종교성 변인들과 8개의 심리학적 변인, 5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분석모델에 포함시켜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종교성변인이 공동으로 설명한 생활만족도 변량은 12%이었다. 그리고 이 다중회귀분석에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성) 변인은 신봉종교와 종교적 갈등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성)이 심리적 복리(생활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비교적 미약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성태도: 성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97년도에 지방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종교성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¹⁰⁾하

4) 한내창, 「종교성과 주관적 삶의 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3집(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pp.179-212.

5) Melvin Pollner, "Divine Relations,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1989, pp.92-104.

6) Fern K. Willits & Donald M. Crider, "Religion and Well-Being: Men and Women in the Middle Year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9, 1988, pp.281-294.

7) Allen E. Bergin,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evaluation and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1983, pp.170-184.

8) 한내창, 「노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삶의 질」, 『종교연구』 (한국종교학회, 2002) 제26집, pp.43-61. 사용한 자료 세트의 초점이 종교(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성) 관련 변인은 신봉종교 하나만 포함된 제한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심리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들을 분석모델에 포함시켜 다변이 분석을 한 결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순효과를 가지고 있는 변인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건강, 돈, 그리고 가족관계(화목).

9) 학자들마다 주관적 삶의 질, 생활 만족도, 생애 만족도, 심리적 복리, 웰빙 등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현상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 또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10) 정순일 · 한내창, 「종교성과 사회적 윤리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31집 가을호(한국

였다. 아홉 개의 종교성 변인들이 성도덕을 포함한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근거로는 개인의 종교성이 일탈 행동을 제약한다는 티틀과 웰치(Tittle & Welch, 1983)¹¹⁾의 경험적 연구 결과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 종교성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그라스미크 등(Grasmick, Kinsey, & Cochran, 1991)¹²⁾의 연구에 기초하여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가족, 사회환경적 요인들과 함께 9개의 종교성 변인들을 다중회귀분석 모델에 포함시킨 결과 혼전성수용도를 포함한 성태도에 종교적 그물망 및 종교의 사회적 지원, 비본질적 종교성, 종교의 필요성, 그리고 종교적 몰입도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2010년에 필자에 의해 이루어진 종교(성)와 혼전·혼외 등 성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이 가설을 본격적으로 검증한 연구이었다. 우리나라 성인들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자료¹³⁾에 기초하여 종교성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워너-윌슨(Werner-Wilson, 1998)¹⁴⁾ 페링 등(Fehring, et al., 1998)과 로스토프스키 등(Rostosky et al., 2004)의 연구들은 종교성이 대체로 성행동이나 성수용도를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 토대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혼전성수용도는 7개의 종교(성) 변인에 의해 변량의 7%가 설명되었고, 구체적으로는 범회·예배 참석빈도, 본질적 종교성과 비본질적 종교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외성수용도는 종교성 변인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혼전성수용도는 종교성 변인들에 의해 비교적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태문제: 필자는 2001년도에 종교성의 척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¹⁵⁾ 서구에서 개발된 다양한 종교적 태도 및 행동의 척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척도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중고생과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대학생의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변별-수렴 타당도를 점검하고 또 다양한 사회적 관련현상

사회학회, 1997), pp.645-670.

11) Charles R. Tittle & Michael R. Welch, "Religiosity & Deviance: Toward a Contingency Theory of Constructing Effects", *Social Forces*, 61, pp.653-682.

12) Harold G. Grasmick, Karyl Kinsey, and John K. Cochran, "Denomination, Religiosity, and Compliance with the Law: A Study of Adul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0, 1991, pp.99-107.

13)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실시한 2008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

14) Ronald Jay Werner-Wilson,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Sexual Attitude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Adolescence*, 33, pp.519-531.

15) 한내창, 「우리문화에서 I/E 및 기타 종교성 척도」, 『한국사회학회』 제35집 6호(한국사회학회, 2001), pp.193-216; 한내창, 「종교성에 대한 한 경험적 논의」, 『원불교사상』 제25집(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1), pp.139-157.

(correlates: 단군숭배, 조상제사에 대한 태도, 자존감, 불안감, 생활 만족도, 낙태에 대한 태도, 음주, 이혼, 순결, 무규범성 등)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점검하였다. 이 분석에서 종교(성) 변인 10개가 도입되었다. 신봉종교, 신앙열성도, 종교활동 빈도, 신앙기간, 교리 이해도, 종교의 중요성, 종교적 그물망 및 지원, 본질적·비본질적 종교성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이 공동으로 설명한 '낙태(설문의 예: '불가피한 낙태도 있다')' 변인의 변량은 6%이었다. 신봉종교, 신앙열성도, 그리고 종교의 중요성이 낙태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낙태 문제와 관련하여 종교성 변인의 설명력은 비교적 약한 편이었다.

종교간결혼허용도: 종교는 지위동호와 가치동호가 교차하는 장으로서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종교는 지위와 가치의 유사성을 제공해주고 신뢰구조와 정서적 지지를 증진시켜 주어 결혼 안정도를 높여준다고 보기 때문에 족내혼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필자는 라자스펠드와 머튼(Lazarsfeld & Merton, 1954)¹⁶⁾의 이론적 준거들과 선더스(Saunders, 1976),¹⁷⁾ 맥커천(McCutcheon, 1988),¹⁸⁾ 칼미준(Kalmijn, 1998),¹⁹⁾ 라슨과 먼로(Larson & Munro, 1990)²⁰⁾ 등의 경험적 연구에 기초하여 타종교인과의 결혼 수용도 모델을 설정하고 '2008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²¹⁾ 일곱 개의 종교(성) 변인들이 다중회귀분석에 도입되었다. 이들이 공동으로 설명한 종교간결혼허용도 변인의 변량은 불교 집단에서 2%, 개신교 21%, 천주교 15%이었다. 불교 집단에서는 종교성이 종교간결혼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개신교 집단에서는 종교활동참여, 본질적 종교성, 그리고 종교적 배타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천주교 집단에서는 본질적 종교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종교는 종교간결혼허용도에 다소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주로 개신교 집단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앞의 '이끄는 말'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성이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적으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필자가

16) Paul F. Lazarsfeld & Robert K. Merton, "Friendship as a Social Process: A Substantive and Methodological Analysis," pp.18-66, in *Freedom and Control in Modern Society*, edited by M. Berger(New York: Van Nostrand, 1954).

17) LaVell E. Saunders, "The Gradient of Ecumenism and Opposition to Religious Inter-marriag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17, 1976, pp.107-119.

18) Allan L. McCutcheon, "Denominations and Religious Inter-marriage: Trends among White Americans in the Twentieth Centur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9, 1988, pp.213-227.

19) Matthijs Kalmijn, "Inter-marriage and Homogamy: Causes, Patterns, &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998, pp.395-421.

20) Lyle E. Larson & Brenda Munro, "Religious Inter-marriage in Canada in the 1980'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1, 1990, pp.239-250.

21) 한내창, 2012, 위의 논문.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수행해온 국내의 경험적 연구들은 종교성이 개인들의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 영향력 정도는 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약한 관계를 세속화와 특수성의 가설로 잠정 결론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루어진 전세계 36개국에서 이루어진 종합사회조사는 종교성과 사회적 태도 간 관계를 평가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종교성과 사회적 태도 간 약한 관계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경향인가(세속화(또는 일반화) 가설), 아니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풍토의 결과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조사 방법

1. 자료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콘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 36개국(북아일랜드와 동독을 포함)에서 18세²²⁾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총조사(General Social Survey) 자료이다. 표본은 다단계지역집락표집 방법에 의해 추출되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고, 총 사례수는 52,647명이다. 국가별 표본 수는 <표 2>를 참조하기 바란다. 조사대상국가의 지역별 분포는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 조사지역의 분포: 36개국

① 아시아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필리핀이 포함되어 있고, ② 오세아니아주에서는 뉴질랜드, ③ 미주에서는 미국, 멕시코, 도미니코, 칠레, 우르과이가 포

22) 일본, 남아공, 핀란드, 러시아에서는 15-17세 연령층도 조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전체 표본의 0.6%(215명)).

함되어 있으며, ④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는 동서유럽과 인근 국가들이다: 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⑥ 동독, 서독, 스위스, 오스트리아; ⑦ 크로아티아, 체코,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⑧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⑨ 영국,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⑩ 러시아, 우크라이나; ⑪ 터키, 사이프러스.

2. 종교분포

표본들의 특성을 제시하기로 하면 너무 많은 지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가별 종교 분포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임의적으로 종교별 분포를 유형화해보면 크게 여섯 개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과 일본 유형이다. 어느 한 종교에 의해 독점되지 아니하고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하면서 각자 독특한 종교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불교 23.7%, 개신교 25.9%, 천주교 9.0%로 비교적 균형잡힌 다종교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표본의 33.0%가 불교를 신봉하고 있고, 61.3%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기타 종교들은 미미한 편이었다. 대만은 불교 20.3%, 기타종교 61.3%(도교 중심의 동양종교)의 독특한 종교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국가별 신봉종교

	무종교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	기타	사례수
한국	39.7	9.0	25.9	23.7	-	1.7	1508
일본	61.3	-	-	33.0	-	5.8	1200
대만	12.9	1.5	4.0	20.3	-	61.3	1927
오스트리아	17.3	73.2	4.4	-	2.4	15.8	1020
벨기에	21.8	74.8	0.7	-	1.0	1.8	1263
칠레	8.4	71.0	16.3	-	0.1	4.2	1505
크로아티아	6.4	87.3	0.2	0.2	1.0	4.9	1201
체코	59.1	33.7	4.0	-	-	3.1	1512
도미니코	3.0	77.4	17.1	0.1	-	2.3	2086
프랑스	43.3	49.8	1.2	-	0.9	4.8	2454
아일랜드	7.0	87.6	2.5	0.1	0.5	2.3	2049
멕시코	8.0	80.8	7.3	-	0.1	3.7	1471
필리핀	0.0	80.9	1.4	-	5.4	12.3	1200
포르투갈	7.9	87.9	2.6	-	0.2	1.4	1000
슬로바키아	16.5	69.6	11.8	-	-	2.1	1138
슬로베니아	19.5	73.4	1.4	-	2.0	3.7	1065

스페인	21.1	73.6	0.9	0.1	1.3	2.9	2373
미국	16.0	24.1	51.0	0.5	0.7	7.7	1365
남아공	14.4	8.3	49.6	-	4.8	23.0	3292
덴마크	13.9	0.6	80.7	-	0.2	4.5	2004
핀란드	17.6	-	77.2	-	-	5.2	1132
노르웨이	15.9	0.7	77.9	-	0.9	3.7	1072
스웨덴	29.3	1.1	65.6	0.2	1.1	2.8	1235
사이프러스	0.4	0.6	0.1	-	-	98.9	1000
러시아	15.6	0.2	0.3	0.4	4.3	79.2	1015
우크라이나	8.1	7.4	1.2	-	0.5	82.9	2036
라트비아	38.7	19.1	21.2	-	-	21.0	1069
네덜란드	41.3	27.4	21.5	-	1.4	8.4	1951
뉴질랜드	36.7	12.8	33.2	1.0	0.4	16.0	1027
스위스	25.1	33.4	32.2	0.7	3.0	5.6	1229
우르구아이	27.7	52.6	13.7	1.1	-	6.0	1010
서독	16.0	40.6	36.0	-	3.6	3.8	1182
영국	43.6	8.7	32.8	0.3	2.0	12.7	1986
북아일랜드	13.2	35.5	49.3	-	0.1	1.8	1089
터키	0.3	-	-	-	98.6	1.0	1453
동독	75.6	3.6	18.9	-	1.0	1.0	524
전체	21.5	36.3	21.5	2.3	3.9	14.5	100.0
사례수	11302	19133	11322	1193	2041	7656	52647

다음은 오스트리아로부터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14개 국가로 이루어진 집단인데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들이다(① 남미: 멕시코, 도미니코, 칠레; ② 아시아: 필리핀; ③ 서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④ 동유럽: 크로아티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대부분 이 집단에 속한 국가들은 인구의 70-80%(체코(33.7%)와 프랑스(49.8%)는 가톨릭의 구성비가 예외적으로 낮음)가 가톨릭에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 인구는 전체 사례의 0.2-17.1%를 이루고 있고, 무종교인 분포는 필리핀처럼 적은(0.0%) 국가로부터 체코(59.1%)와 프랑스(43.3%)처럼 높은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나 대체로 20% 내외이었다.

세 번째 집단은 개신교가 중심을 이루는 그룹인데 미국, 남아공 등 6개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50-80%의 인구가 개신교를 신봉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가톨릭이 전체 사례의 24.1%를 이루고 있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가톨릭의 비율이 0.6-8.3%에 불과하였다.

네 번째 집단은 사이프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개국으로 정교회가 중심인 곳들이

다(정교회가 75-99%). 다섯 번째 집단은 네덜란드, 스위스 등 8개 국가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혼재해 있는 곳들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99%가 이슬람을 신앙하고 있는 터키와 76%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독이 독특한 종교 구성을 보이고 있는 예외 집단이라 하겠다.

3. 측정

변수 측정에 관한 서술은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 이미 자세히 기술하였기 때문에(필자의 논문, 2012)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서술하기로 한다. 종교성 변인은 종교적 행동과 태도를 측정한 6개 변인을 선택하였다: 종교활동참여빈도(PST), 기타종교활동참여빈도(POT), 기도빈도(PRY), 스스로평가한종교성(RC), 본질적종교성(ZI), 비본질적종교성(ZE). 종교활동참여빈도와 기타종교활동참여빈도, 그리고 기도빈도는 각각 ‘불공이나 예배 참여 빈도,’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불공, 예배같은) 이외의 종교 모임 참여 빈도,’ 그리고 ‘기도 빈도’로서 각각 연간 빈도로 환산하였다. 스스로평가한종교성은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리커트유형 7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본질적종교성(intrinsic)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리커트유형 5점 척도 1개 문항에 의해 측정하였다.²³⁾ 비본질적종교성(extrinsic)은 ‘종교를 통해 내적 평화, 친구 사귀, 위안, 사교 등 도구적 목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리커트유형 5점 척도 4개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이 변인의 심리측정적 특성 등 자세한 기술은 한내창의 2012년 논문을 참조할 것).²⁴⁾

사회적 태도 변인은 6개 변인을 선택하였다: 생활만족도(LS), 혼전성수용도(PMS), 혼외성수용도(EMS), 기형아낙태허용도(AB1), 빈곤아낙태허용도(AB2), 그리고 종교간결혼수용도(IRM). 생활만족도는 ‘얼마나 행복 혹은 불행한가’를 묻는 리커트유형 1개 문항에 의해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재부호화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혼전성수용도와 혼외성수용도는 각각 ‘혼전’ 및 ‘혼외’의 성관계를 잘못되었다고 보느냐 아니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태도를 묻는 설문으로 리커트유형 4점척도에 의해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잘못이라고 보는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기형아낙태허용도와 빈곤아낙태허용도는 ‘태아가 기형일 때’ 또는 ‘가족이 매우 가난할 때’ 낙태하는 것을 잘못으로 보느냐 아니면 잘못이 아니라고 보느냐를 각각 한 개 문항의 리커트유형 4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낙태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종교간결혼수용도는 ‘친척이 다른 종교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허용하겠는가’를 묻는 설문으로 리커트유형 4점척도 한 개 문항에 의해 측정하였다. 점수

23) 이 문항을 본질적 종교성(intrinsic religiosity) 변인으로 채택한 논리적 근거는 필자의 논문(2012)을 참조하기 바란다.

24) 한내창, 2012, 위의 논문.

가 높을수록 타종교인과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의미한다.

종교성과 사회적 태도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이 밖에 몇 가지 통제 변인을 도입하였다. 응답자의 성(gender), 연령, 교육년수 변인들이 그것들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기본적인 분석만 하더라도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 개의 논문 안에 모든 것을 수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부분들만을 발췌하고 압축하여 최소한의 것들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기본 변인들의 평균값, 국가별 주요 변인들 간 상관계수, 종교성이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별 다중회귀 분석 등을 압축하여 제시한다.

IV. 분석 결과

1. 기술적 통계

먼저 국가별 종교성 평균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각국의 종교분포별 유형에 따라 종교성에서 어떤 유형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가톨릭 중심 국가나 개신교 중심 국가, 또는 가톨릭-개신교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집단 간에 종교 서비스참여빈도를 비롯한 6개의 종교적 행동 및 태도 변인에서 유형화된 차이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차이는 종교분포유형별이 아니라 주로 개별 국가 간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개별 국가들 별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국가들 간 종교성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 위해 하나의 종교성 지수를 만들었다. 이는 종교성 6개 변인 각각에 대해 표준점수(z score)²⁵⁾를 구한 다음 이를 합계하여 구하였다. <표 3>의 맨 오른쪽 칸에 보이는 숫자가 이 점수인데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점수크기별로 36개국들을 재정렬시켜 보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분포를 보면 ① 필리핀과 남아공, 그리고 터키가 극단적으로 높은 종교성 양상을 보였고, ②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 ③ 북아일랜드, 도미니코, 멕시코, 칠레,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등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종교적 성향을 보인 반면, ④ 동독, 일본, 노르웨이, 체코,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서독,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종교적 성향을

25) $z = \sum_{i=1}^6 (v_i - \mu_i) / SD_i$, (v = 각 사례의 측정 값, μ = 평균)

보였다. 일본은 동독 다음으로 가장 낮은 종교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 결과들을 거칠게 종합하면 일부 국가를 예외로 하고 대체로 유럽국가들은 낮은 종교적 성향들을 보인 반면 아시아나 중남미 등에 위치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종교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 다르게 이야기 하면 일부를 예외로 하고 대부분 산업화 정도와 세속화 정도가 다소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국가별 종교성 평균: 종교성 정도별로 정렬

	종교성						종 합 점 수
	PSV	POT	PRY	RC	ZI	ZE	
필리핀	45.25	18.79	403.83	5.15	4.05	17.65	5.07
남아공	29.01	16.61	351.42	5.19	3.79	16.91	4.47
터키	59.23	11.34	85.00	5.46	4.72	16.34	4.07
미국	24.71	12.24	326.19	4.80	3.21	16.27	2.45
한국	23.11	19.96	126.38	3.93	2.27	15.40	2.34
북아일랜드	28.32	13.25	160.76	4.41	3.14	15.53	1.91
도미니코	34.68	8.62	59.42	4.65	3.79	16.78	1.88
멕시코	28.66	14.82	210.82	4.58	3.04	15.37	1.77
칠레	19.64	13.37	211.71	4.40	3.22	16.45	1.68
아일랜드	32.81	6.88	192.40	4.62	2.91	15.44	1.32
슬로바키아	26.24	5.76	190.37	4.45	2.98	14.95	1.07
포르투갈	18.00	10.15	143.12	4.65	3.13	15.69	0.96
대만	16.93	4.30	97.89	4.93	2.81	15.80	0.44
스페인	17.21	4.08	117.49	4.00	2.42	14.50	0.20
우크라이나	9.79	2.40	133.52	4.43	3.03	15.04	0.19
사이프러스	16.72	2.67	150.14	4.97	2.75	14.65	0.17
스위스	11.49	4.51	148.94	3.94	2.40	15.11	0.09
크로아티아	19.63	4.57	163.66	4.95	2.59	-	-
우르과이	10.92	7.44	160.66	3.52	2.65	14.82	-0.61
뉴질랜드	12.03	8.58	126.60	3.78	2.37	15.30	-0.67
서독	10.67	5.84	108.76	3.96	2.39	14.68	-0.80
영국	7.22	5.57	81.08	3.70	2.30	14.78	-1.10
러시아	3.59	1.28	3.68	4.25	2.75	15.02	-1.21
슬로베니아	13.33	3.16	72.23	3.88	2.11	15.24	-1.24
네덜란드	12.51	4.26	140.28	3.99	2.09	14.08	-1.25
오스트리아	10.84	3.44	79.31	4.00	2.36	13.73	-1.30
핀란드	4.46	4.10	105.85	3.92	2.15	14.05	-1.63
라트비아	6.80	2.06	74.71	3.88	2.16	14.05	-1.78
프랑스	6.44	5.56	80.09	3.50	2.26	13.48	-2.23
벨기에	7.04	3.19	68.28	4.10	1.96	13.04	-2.24

스웨덴	3.73	3.41	43.23	3.49	1.90	14.36	-2.35
덴마크	4.46	3.79	21.95	3.60	1.77	14.55	-2.36
체코	5.82	3.63	51.03	3.20	1.95	13.81	-2.49
노르웨이	3.15	3.44	35.57	3.86	1.90	14.24	-2.63
일본	4.58	2.55	108.70	3.49	1.97	12.13	-2.69
동독	2.84	1.85	35.59	2.13	1.50	13.03	-4.07
전체	17.34	7.13	137.70	4.23	2.72	15.12	

※ PSV: 종교활동참여빈도, POT: 기타종교활동참여빈도, PRY: 기도빈도, RC: 스스로 평가한 종교성, ZI: 본질적종교성(intrinsic), ZE: 비본질적종교성(extrinsic)

다음은 국가별 사회적 태도 점수분포이다. 생활만족도(LS), 혼전성수용도(PMS), 혼외성수용도(EMS), 기형아낙태허용도(AB1), 빈곤낙태허용도(AB2), 종교간결혼수용도(IRM)를 살펴 보았다. 이들은 서로 성격들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지수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생활만족도와 종교간결혼수용도는 각각 따로 살펴보고, 혼전 및 혼외성수용도 두 개 변인과 기형아 및 빈곤낙태수용도 두 개 변인은 각각 표준점수(z점수)로 환산·통합하여 지수를 만들었다. 결과는 <표3>에 제시되어 있다. ① 먼저 생활만족도는 멕시코, 아일랜드, 미국, 도미니코, 벨기에, 뉴질랜드 등 중북미와 유럽국가들이 높은 만족 정도를 보인 반면 우크라이나, 터키, 라트비아,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한국, 남아공 등 비유럽 내지 경제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이 낮은 생활만족 정도를 보였다. ② 타종교간결혼수용도는 터키,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일본, 체코, 남아공, 필리핀, 도미니코, 슬로바키아 등 국가들이 높은 배타적 태도를 보인 반면 우르과이, 대만, 스위스 칠레, 포르투갈, 스페인, 서독,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등 남미 및 유럽국가들이 낮은 배타적 태도를 보였다. ③ 혼전 및 혼외성수용도 면에서는 터키, 남아공, 필리핀, 도미니코, 대만, 우리나라, 멕시코, 미국, 칠레 등 국가들이 높은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었고, 대체로 오스트리아, 동독, 프랑스, 체코, 스위스, 서독, 슬로베니아,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국가들은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④ 기형아 및 빈곤낙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필리핀, 도미니코, 칠레, 남아공, 멕시코,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북아일랜드 등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반대의사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러시아, 노르웨이, 체코, 벨기에, 핀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반대의사 정도가 낮았다.

〈표 4〉 국가별 사회적 태도 평균: PEM(혼전혼외성수용도)별로 정렬

	태도						z점수	
	LS	PMS	EMS	AB1	AB2	IRM	PEM	AB12
터키	2.56	3.68	3.87	2.64	-	2.63	1.89	-
남아공	2.90	3.26	3.78	2.91	3.47	2.30	1.44	1.38
필리핀	3.08	3.15	3.78	3.65	3.66	2.26	1.35	2.14
도미니코	3.33	3.12	3.60	3.13	3.54	2.17	1.11	1.61
대만	3.06	2.66	3.80	1.59	2.68	1.54	0.96	-0.38
한국	2.86	2.61	3.61	1.83	2.54	1.95	0.70	-0.28
멕시코	3.44	2.70	3.40	2.70	3.21	1.93	0.54	1.00
미국	3.34	2.08	3.70	2.01	2.78	1.75	0.38	0.04
칠레	2.92	2.25	3.52	3.00	3.47	1.64	0.31	1.45
우크라이나	2.53	2.33	3.40	1.88	2.40	1.90	0.26	-0.35
사이프러스	2.93	2.03	3.61	2.15	3.32	2.54	0.23	0.61
북아일랜드	3.24	1.92	3.63	2.43	3.00	1.88	0.17	0.61
일본	3.03	2.24	3.38	2.26	2.59	2.40	0.13	0.11
뉴질랜드	3.29	1.67	3.59	2.28	2.28	1.82	-0.10	-0.12
아일랜드	3.42	1.82	3.43	2.53	3.23	1.73	-0.17	0.89
슬로바키아	2.83	1.80	3.37	1.76	2.43	2.14	-0.24	-0.44
포르투갈	2.90	1.77	3.32	1.68	2.56	1.64	-0.33	-0.39
크로아티아	2.99	1.48	3.49	1.76	2.47	1.82	-0.38	-0.40
스페인	3.05	1.58	3.40	1.74	2.59	1.68	-0.38	-0.32
우리과이	3.09	1.62	3.37	1.99	2.76	1.53	-0.39	0.03
핀란드	2.98	1.40	3.53	1.52	2.35	1.80	-0.39	-0.72
영국	3.19	1.49	3.45	1.60	2.30	2.00	-0.41	-0.71
라트비아	2.60	1.75	3.22	1.87	2.42	2.53	-0.45	-0.33
러시아	2.76	1.97	3.05	1.58	1.88	1.89	-0.45	-1.02
노르웨이	3.16	1.33	3.50	1.55	2.27	1.80	-0.49	-0.77
스웨덴	3.15	1.18	3.51	1.30	1.88	2.04	-0.59	-1.28
네덜란드	3.23	1.41	3.34	1.65	2.62	1.76	-0.61	-0.39
덴마크	3.12	1.24	3.45	1.40	2.04	1.91	-0.62	-1.05
벨기에	3.33	1.33	3.32	1.41	2.44	2.10	-0.69	-0.72
슬로베니아	2.93	1.41	3.22	1.60	2.24	1.72	-0.75	-0.71
서독	3.08	1.42	3.17	2.00	2.99	1.71	-0.80	0.21
스위스	3.27	1.40	3.11	1.67	2.40	1.56	-0.86	-0.54
체코	2.80	1.45	3.01	1.62	2.21	2.36	-0.95	-0.73
프랑스	2.91	1.37	3.04	1.32	1.81	1.88	-1.00	-1.36
동독	2.91	1.29	3.07	1.59	2.51	1.87	-1.01	-0.54
오스트리아	3.13	1.38	2.92	2.22	2.62	1.86	-1.14	0.09
전체	3.04	1.99	3.44	2.03	2.67	1.95		

※ PEM= PMS와 EMS의 z점수 합계, AB12= AB1과 AB2의 z점수 합계

우리나라의 종교성 및 사회적 태도를 살펴보자(〈표 5〉참조). 연간 종교활동참여(PSV)빈도는 상위 10위에 속하였고, 기타종교활동참여(POT)는 우리나라가 가장 빈번한 것(1위)으로 나타났다. 기도빈도는 중간정도이고(17위) 스스로평가한종교성(RC)과 본질적종교성(I)은 각각 23, 24위로서 비교적 낮은 집단에 속하였다. 비본질적종교성(E)은 11위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에 속하였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종교성에서 36개 국가 가운데 5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다. 사회적 태도 변인가운데 생활만족도는 30위로서 매우 낮은 편이었다. 반면 혼전성수용도와 혼외성수용도에서는 7, 8위를 기록함으로써 혼전 및 혼외성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형아낙태허용도와 빈곤낙태허용도는 18위로서 중간에 위치하였고, 종교간결혼수용도는 13위로서 종교 간 결혼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낮은 생활만족도, 성과 관련해서는 높은 도덕관념, 낙태와 관련해서는 중간 정도의 도덕관념, 그리고 종교간결혼에 대해서는 다소 배타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5〉 각 변인들의 기초 통계와 우리나라의 위치

	값범위	평균	SD	중위수	한국	
					점수	순위
PSV	2.84-59.23	16.44	12.81	12.27	23.11	10
POT	1.28-19.96	6.87	5.03	4.54	19.96	1
PRY	3.68-403.83	129.74	88.46	113.13	126.38	17
RC	2.13-5.46	4.16	0.66	4.00	3.93	23
I	1.50-4.72	2.63	0.70	2.41	2.27	24
E	12.13-17.65	14.92	1.18	14.95	15.40	11
종교성 종합 지수						5
LS	2.53-3.44	3.04	0.23	3.06	2.86	30
PMS	1.18-3.68	1.91	0.65	1.71	2.61	7
EMS	2.92-3.87	3.42	0.24	3.42	3.61	8
AB1	1.30-3.65	2.00	0.56	1.80	1.83	18
AB2	1.81-3.66	2.63	0.48	2.54	2.54	18
IRM	1.53-2.63	1.95	0.29	1.88	1.95	13
PEM(PMS+EMS z점수 종합 지수)						6
AB12(AB1+AB2 z점수 종합 지수)						15

다음은 종교별 종교성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6〉참조). 무종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불교 표본만을 비교하였다. 다른 종교들은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준점수(z점수)로 만든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당연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종교성이 가장 낮았고(-3.91), 불교가 다음(-0.07)을 이었다. 반면 이슬람교(4.21)

는 매우 높은 종교성을 보였고, 가톨릭(1.04)과 개신교(1.10)는 비교적 낮은 종교적 성향을 보였다: 이슬람>개신교>가톨릭>불교>무종교. 종교성 정도를 중심으로 집단화한다면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① 불교와 무종교, ② 기독교(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③ 이슬람.

사회적 태도에 있어 생활만족도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상대적으로 불교와 이슬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성수용도는 이슬람이 가장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다음은 불교였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혼외성수용도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모든 종교집단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기형 및 빈곤)낙태허용도는 이슬람 집단이 가장 높은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불교는 비교적 낮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중도적 태도를 보였다. 타종교와의결혼수용도는 이슬람이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 반면 다른 집단은 공히 상대적으로 낮은 배타적 태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이슬람은 낮은 생활만족도, 높은 성(혼전&혼외) & 낙태(기형&빈곤) 거부감, 배타적 결혼관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불교는 낮은 생활만족도, 높은 성도덕 관념, 기형아 낙태에 대해 다소 허용적 태도, 포용적 결혼관의 경향을 보였다. 기독교(가톨릭과 개신교)는 높은 생활만족도, 수용적 혼전 성태도, 낙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부정적 태도, 포용적 결혼관을 보였다.

〈표 6〉 신봉종교별 종교성 및 태도 평균

	종교성						z점수합 계	
	PSV	POT	PRY	RC	ZI	ZE		
종교없음	1.11	0.82	28.54	2.59	1.67	13.16	-3.91	
가톨릭	22.02	7.70	167.71	4.66	2.99	15.58	1.04	
개신교	18.71	11.20	179.69	4.48	2.81	15.68	1.10	
이슬람	51.52	13.66	164.75	5.42	4.44	16.46	4.21	
불교	12.90	5.96	132.79	4.78	2.43	14.96	-0.07	
기독교정교	9.77	2.09	105.43	4.70	2.90	15.06	-0.03	
기타기독교	28.96	19.60	322.00	5.09	3.54	16.66	3.54	
동양종교	16.45	3.18	82.18	4.94	2.79	15.50	0.17	
기타종교	20.26	11.67	205.07	4.58	3.02	15.69	1.99	
전체	17.34	7.13	137.70	4.23	2.72	15.12	-	
	태 도							
	LS	PMS	EMS	AB1	AB2	IRM	z점수 합계	
							PEM	AB12
종교없음	3.02	1.46	3.16	1.58	2.18	1.85	-.77	-.79
가톨릭	3.12	1.98	3.45	2.24	2.92	1.90	.01	.39
개신교	3.11	1.98	3.58	2.01	2.69	1.99	.15	-.00

이슬람	2.70	3.48	3.81	2.64	3.10	2.49	1.66	.85
불교	2.98	2.58	3.59	1.90	2.65	1.94	.65	-.14
기독교정교	2.70	2.12	3.39	1.92	2.57	2.11	.07	-.18
기타기독교	3.06	2.76	3.69	2.72	3.29	2.12	.93	1.09
동양종교	3.04	2.61	3.81	1.55	2.65	1.58	.94	-.43
기타 종교	3.04	2.23	3.46	2.22	2.76	1.98	.01	-.01
전체	3.04	1.99	3.44	2.03	2.67	1.95		

2. 상관분석

다음은 관심 변인들 간 상관관계분석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인 6개와 종속변인 6개 간의 Pearson 단순상관계수를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표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직 우리가 관심가지고 있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상관계수에 초점 맞추어 36개 국가 간 상관계수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리고 독립-종속변인 간 전체적인 관계의 방향 및 강도 정도만 평가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자료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6개 독립변인과 생활만족도(LS)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큰 차이 없이 -0.17~0.17값의 범위 내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상관계수의 평균은 0.05 정도로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는 종교성 변인들과 생활만족도는 거의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우리나라 자료에서도 종교성 변인들은 생활만족도와 0.08에서 0.17까지 분포함으로써 종교성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관계가 매우 적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혼전성수용도(PMS)와 종교성 변인들 간 관계의 정도는 꽤 높은 편이었다. 국가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종교성 변인들과 혼전성수용도 간 단순상관계수는 평균 0.19로부터 0.34까지 분포되어 두 변인 간에는 제법 관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국가별 편차가 심한 데 예를 들어 종교서비스참여빈도와 혼전성수용도 간 단순상관계수가 -0.22로부터 0.65까지 분포되어 매우 다양한 관계 양상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표본에서도 두 변인 간의 관계는 0.02로부터 0.21까지 다양한 강도를 보였는데 혼전성수용도 변인은 도덕성 관련 변인 가운데 종교성 변인들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변인 중의 하나였다. 즉, 개인의 종교성 정도를 통해 혼전성수용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혼외성수용도(EMS)는 혼전성수용도에 비해 종교성과의 관계가 낮은 편이었다. 단순상관계수 평균이 0.08로부터 0.17까지 분포되어 있어 비교적 낮은 관계였다. 이것은 종교성 정도와 상관없이 혼외성수용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인 간 편차도 적기 때문이었다(PMS와 EMS의 평균은 각각 1.91과 3.42이고, 표준편차는 0.65와 0.24). 우리나라 표본에서 혼외성수용도와 종교성 간의 관계는 낮은 편이었다. 모든 상관계수가 0.10이하로 나타났다.

〈표 7〉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DV	IV	전체 표본 ^a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상관분석한 결과 종합 ^b				한국
			r계수범위	r평균	r중위수	rSD	
LS	PSV	.05***	-.08 ~ .14	.05	.05	.05	.14***
	POT	.05***	-.07 ~ .17	.05	.05	.05	.17***
	PRY	.03***	-.11 ~ .13	.02	.03	.05	.08***
	RC	.02***	-.14 ~ .11	.02	.03	.05	.08***
	I	-.02***	-.17 ~ .14	.00	.01	.06	.10***
	E	.04***	-.01 ~ .15	.05	.04	.03	.08***
PMS	PSV	.40***	-.22 ~ .65	.31	.32	.18	.21***
	POT	.26***	.02 ~ .49	.24	.24	.12	.14***
	PRY	.34***	.05 ~ .62	.31	.30	.13	.18***
	RC	.37***	.08 ~ .46	.28	.29	.09	.16***
	I	.49***	.03 ~ .61	.34	.32	.14	.20***
	E	.29***	.02 ~ .36	.19	.19	.09	.02
EMS	PSV	.18***	-.23 ~ .23	.13	.15	.08	.09***
	POT	.11***	-.09 ~ .17	.08	.08	.06	.06
	PRY	.19***	.03 ~ .26	.16	.13	.05	.10***
	RC	.23***	.00 ~ .29	.17	.17	.07	.06*
	I	.22***	-.01 ~ .27	.16	.16	.06	.09***
	E	.19***	.00 ~ .30	.13	.12	.07	.04
AB1	PSV	.32***	-.14 ~ .54	.23	.25	.14	.17***
	POT	.22***	-.03 ~ .38	.18	.17	.09	.15***
	PRY	.29***	-.04 ~ .56	.21	.22	.12	.12***
	RC	.29***	.01 ~ .40	.21	.23	.10	.14***
	I	.39***	-.01 ~ .54	.26	.28	.12	.20***
	E	.20***	.00 ~ .34	.16	.15	.09	-.00
AB2	PSV	.28***	-.16 ~ .38	.19	.21	.11	.15***
	POT	.18***	.00 ~ .27	.13	.12	.06	.12***
	PRY	.28***	-.01 ~ .40	.21	.21	.08	.16***
	RC	.30***	-.02 ~ .40	.21	.24	.10	.10***
	I	.34***	-.05 ~ .43	.21	.24	.12	.13***
	E	.24***	.02 ~ .30	.15	.15	.08	.03
IRM	PSV	.13***	-.09 ~ .24	.10	.09	.08	.23***
	POT	.07***	-.02 ~ .19	.07	.06	.05	.19***
	PRY	.06***	-.09 ~ .24	.06	.06	.07	.20***
	RC	.11***	-.08 ~ .21	.09	.11	.08	.16***
	I	.16***	-.13 ~ .31	.13	.15	.09	.31***
	E	.01	-.16 ~ .18	-.01	-.01	.09	.04

※ 유의수준: *** $p < 0.001$, ** $p < 0.01$, * $p < 0.05$ ^a: 36개국 전체 52,6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b: 36개국 각각에 대해 상관 분석을 하고 그 상관계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것

기형아낙태허용도(AB1)와 빈곤낙태허용도(AB2)는 종교성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형아낙태허용도는 종교성변인들과의 관계에서 국가별 편차가 심하여 -0.14 의 낮은 부적관계에서부터 0.56 까지의 높은 정적관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평균 상관계수는 0.20 안팎을 보여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표본에서는 이보다는 다소 낮은 0.15 내외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비본질적 종교성은 기형아낙태허용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빈곤낙태도허용도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종교간결혼허용도(IRM)는 종교성변인들과 매우 낮은 관계의 정도를 보였다. 평균 상관계수가 -0.01 로부터 0.13 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어 두 변인 간의 관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표본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종교성변인들과 종교간결혼허용도 간 상관관계의 정도가 국제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성 정도가 강할수록 타종교간결혼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3. 다중회귀분석

다음은 종교성변인들이 사회적 태도 변인들에게 미치는 순효과(net effects)를 검증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36개국을 대상으로 6개의 종속 변인 각각에 대해 종교성 변인 6개와 통제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차례로 분석모델에 삽입하여 분석을 하면 216개(36개국 X 6개 종속변인)의 회귀분석결과가 나온다. 이를 요약하여 도표화하면 방대한 지면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종교성과 사회적 태도 간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한 ① 혼전성수용도와 ② 기형아낙태허용도 2개 변인만을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²⁶⁾ 분석결과는 <표 8>부터 <표 11>까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한국, 일본, 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도미니크 표본에서 종교성 변인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성, 연령, 교육수준)이 혼전성수용도(PMS)와 기형아낙태허용도(AB1)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스스로평가한종교성만이 혼전성수용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혼전성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6개의 종교성 변인들이 공동으로 설명한 혼전성수용도 변량은 7%이었다(설명력이 낮은 편임). 성별로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혼전성에 대해 더 수용적 태도를 보였고, 연령은 젊을수록 역시 혼전성에 대해 더 수용적 태도를 보였

26) 사회적 태도 변인 6개 가운데 종교성변인들과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적은 생활만족도와 종교간결혼허용도를 제외시켰다. 그리고 성수용도와 낙태허용도 가운데서 각각 종교성과 관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혼외성수용도와 빈곤낙태허용도도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혼전성수용도와 기형아낙태허용도를 중심으로 종교성이 이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다. 일본과 대만은 기도빈도가 높을수록, 본질적종교성 정도가 높을수록 혼전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오스트리아 표본에서는 기타종교활동참여빈도와 본질적종교성이, 벨기에 표본에서는 종교활동참여빈도, 기타종교활동참여빈도,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혼전성수용도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가졌다. 칠레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 기타종교활동참여,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체코 표본에서는 기타종교활동참여,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도미니코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 기도빈도, 그리고 스스로평가한종교성이 혼전성수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종교성 정도가 높을수록 혼전성을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확률이 높다. 종교성 변인 6개가 설명하는 혼전성수용도 변량은 일본 14%, 대만 8%, 오스트리아

〈표 8〉 다중회귀분석 결과 1

DV	IV	r_{tot}	한국	일본	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도미니크
P M S	PSV	.40***	.08	-.03	.05	.07	.13***	.09**	.02	.09***
	POT	.26***	.03	.03	-.00	.09*	.09**	.10**	.09**	.01
	PRY	.34***	-.01	.14***	.05*	.06	.10**	.06*	.16***	.11***
	RC	.37***	.08*	.04	.04	-.02	.01	-.00	.04	.06**
	ZI	.49***	.06	.08*	.10***	.20***	.22***	.16***	.17***	.01
	ZE	.29***	-.00	-.04	-.02	-.02	.00	.04	.03	-.01
	SX:M	-	-.08**	-.08*	-.11***	.02	.04	.00	-.03	-.09***
	AGE	.15***	.34***	.45***	.40***	.07	.21***	.25***	.21***	.12***
	EDU	.01*	.01	.18***	.00	-.03	.05	.03	-.01	-.04
R^2	1		.07	.14	.08	.08	.25	.14	.23	.05
	2		.19	.26	.24	.09	.28	.19	.27	.07
A B 1	PSV	.32***	.03	-.09	.05*	.07	.17***	.04	.09*	-.01
	POT	.22***	.08	.07	.04	.09*	-.01	.04	.02	.03
	PRY	.29***	-.02	.07	.10***	-.07	.09*	.08**	.05	.05
	RC	.29***	.06	.03	.04	.03	.01	.06	-.02	-.02
	ZI	.39***	.16***	.03	.132	.13**	.13**	.10***	.18***	-.02
	ZE	.26***	-.08*	-.03	-.05	.03	.01	.06*	.07*	.02
	SX:M	-	.01	.09*	.07***	.00	.07*	.08**	.00	-.01
	AGE	-.04***	.04	-.05	-.04	-.05	-.05	.03	.03	.05*
	EDU	.02***	.11***	.11*	.12***	.03	.04	.02	-.02	-.01
R^2	1		.05	.01	.05	.04	.09	.05	.10	.01
	2		.07	.04	.07	.04	.10	.06	.10	.01
사례수		52647	1508	1200	1927	1020	1263	1505	1512	2068

※ (1) 유의수준: *** $p < 0.001$, ** $p < 0.01$, * $p < 0.05$; (2) r_{tot} : 전체 표본에서 상관계수; (3) R^2 에서 1은 6개 종교성, 2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3개를 추가한 설명변량.

8%, 벨기에 25%, 칠레 14%, 체코 23%, 그리고 도미니코 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성 수용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개인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고 벨기에나 체코는 그 영향력이 큰 편이었다.

기형아낙태에 대한 태도에 종교성 변인들이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우리나라 표본에서는 본질적 종교성이 정적, 비본질적 종교성이 부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를 인생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지향(I)이 강할수록 기형아 낙태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종교를 삶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지향(E)이 강할수록 기형아 낙태를 수용하는 태도가 컸다. 일본 표본에서는 종교성이 기형아낙태 변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대만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도빈도, 본질적 종교성이 기형아낙태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오스트리아 표본에서는 기타종교활동참여와 본질적종교성이, 벨기에 표본에서는 종교활동참여빈도와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 종교성이, 칠레 표본에서는 기도빈도, 본질적종교성, 그리고 비본질적종교성이, 체코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 본질적종교성, 그리고 비본질적종교성이 기형아낙태허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이들 종교성이 높을수록 기형아낙태를 거부할 확률이 높다 하겠다. 도미니코 표본에서는 종교성변인이 기형아낙태허용도에 아무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변인 6개가 공동으로 설명하는 기형아낙태허용도 변량은 우리나라 5%, 일본 1%, 대만 5%, 오스트리아 4%, 벨기에 9%, 칠레 5%, 체코 10%, 도미니코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들 나라에서 종교성은 기형아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필리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표본 분석 자료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혼전성수용도와 관련하여, 프랑스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종교성과 비본질적종교성이, 아일랜드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 기타종교활동참여, 기도빈도, 스스로평가한종교성,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기타종교활동참여, 기도빈도, 본질적종교성과 비본질적종교성이 혼전성수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표본에서는 종교성 변인 어느 것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포르투갈 표본과 슬로바키아 표본에서는 공히 종교서비스참여빈도와 본질적종교성이, 슬로베니아 표본에서는 기타종교활동참여와 기도빈도, 본질적종교성과 비본질적종교성이, 스페인 표본에서는 모든 종교성 변인들이, 미국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도빈도, 본질적종교성과 비본질적종교성이 혼전성수용도에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즉, 이들 종교성 정도가 높을수록 혼전성을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확률이 높다. 종교성 변인 6개가 설명하는 혼전성수용도 변량은 프랑스 29%, 아일랜드 25%, 멕시코 19%, 필리핀 1%, 포르투갈 17%, 슬로바키아 18%, 슬로베니아 19%, 스페인 22%, 미국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을 제외하고 중

교성 변인들의 개인들의 혼전성수용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성 정도가 강할수록 개인들은 혼전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기형아낙태허용도와 관련하여, 프랑스 표본에서는 비본질적종교성을 제외한 5개의 종교성변인이, 아일랜드는 기타종교활동참여를 제외한 5개 변인이, 멕시코표본은 기타종교활동참여와 본질 및 비본질적종교성이, 필리핀 표본에서는 기도빈도가, 포르투갈에서는 종교활동참여빈도, 기타종교활동참여, 스스로평가한종교성,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슬로바키아에서는 종교활동참여빈도, 스스로평가한종교성,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슬로베니아표본에

〈표 9〉 다중회귀분석 결과 2

DV	IV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필리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P M S	PSV	.26***	.19**	.06	.04	.15***	.19***	.05	.14***	.27***
	POT	.03	.04*	.08**	.03	.01	.04	.16***	.05*	.04
	PRY	.14***	.08***	.11***	-.00	-.01	.02	.10**	.10***	.10***
	RC	.03	.10***	-.01	.02	.06	.01	-.07	.08**	.04
	ZI	.11***	.10***	.19***	.02	.14***	.16***	.17***	.10***	.25***
	ZE	.05*	-.01	.14***	.03	-.03	.05	.16***	.06*	.05*
	SX:M	.03	.00	-.08**	-.10***	-.10***	-.04	.00	.03	.02
	AGE	.18***	.28***	.16***	.13***	.32***	.23***	.12***	.28***	.08***
	EDU	.03	.08***	.07**	.06*	.10***	.05	.01	.10***	-.06**
R ²	1	.29	.25	.19	.01	.17	.18	.19	.22	.32
	2	.32	.30	.22	.04	.26	.22	.20	.30	.33
A B 1	PSV	.19***	.15***	.06	-.03	.09*	.17***	.08	.17***	.15***
	POT	.08**	.02	.07*	-.04	.12***	-.02	.03	.04	-.02
	PRY	.11***	.07**	.02	.06*	-.05	.19***	.16***	.06	.09**
	RC	.08**	.13***	.01	.04	.08*	.03	-.04	.07*	.12***
	ZI	.13***	.12***	.19***	.01	.14***	.25***	.12**	.12***	.23***
	ZE	.01	.08**	.19***	-.00	-.02	-.07	.08**	.04	-.04
	SX:M	.10***	.05*	-.04	.08**	.05	.07*	.09**	.12***	.05
	AGE	-.00	.05	.04	-.01	.01	.05	.01	-.10***	-.11***
	EDU	.02	.01	-.02	-.05	.00	.02	.10**	.04	-.03
R ²	1	.20	.18	.17	.01	.09	.23	.10	.10	.16
	2	.21	.18	.17	.02	.09	.24	.11	.12	.18
사례수		2454	2049	1471	1200	1000	1138	1065	2373	1365

※ (1) 유의수준: *** $p<0.001$, ** $p<0.01$, * $p<0.05$; (2) r_{tot} : 전체 표본에서 상관계수; (3) R^2 에서 1은 6개 종교성, 2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3개를 추가한 설명변량.

서는 기도빈도와 본질적·및 본질적종교성이, 스페인에서는 종교활동참여, 스스로평가한 종교성,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종교활동참여, 기도빈도, 스스로평가한종교성,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기형아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종교성 정도가 강할수록 기형아 낙태를 반대할 확률이 높다 하겠다. 종교성변인들이 공동으로 설명한 기형아낙태허용도 변인의 변량은 프랑스 20%, 아일랜드 18%, 멕시코 17%, 필리핀 1%, 포르투갈 9%, 슬로바키아 23%, 슬로베니아 10%, 스페인 10%, 그리고 미국 16%이었다. 필리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교성 변인들은 기형아낙태에 대해 비교적 강한 억제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남아공,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사이프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라트비아의 자3료분석 결과이다(〈표 10〉 참조). 혼전성수용도와 관련하여, 남아공 표본에서는 기타종교활동참여, 기도빈도, 스스로평가한종교성 및 본질적종교성이, 덴마크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타종교활동참여, 기도빈도 및 본질적종교성이, 핀란드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빈도, 본질적종교성 및 비본질적종교성이, 노르웨이표본과 스웨덴표본은 공히 각각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도빈도 및 본질적종교성이, 그리고 사이프러스 표본에서는 스스로평가한종교성과 본질적종교성이 혼전성수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러시아 표본에서는 본질적종교성만이, 우크라이나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빈도와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라트비아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빈도와 기도빈도, 스스로평가한종교성, 본질적종교성, 그리고 비본질적종교성이 혼전성수용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성 변인들은 개인들의 혼전성수용도에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성 변인들의 설명변량을 보면 남아공 3%, 덴마크 29%, 핀란드 40%, 노르웨이 31%, 스웨덴 56%, 사이프러스 15%, 러시아 8%, 우크라이나 7%, 라트비아 19%로 나타났는데, 특히 북유럽국가들에게 있어 종교성은 그들의 혼전 성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형아낙태허용도와 관련하여서는, 남아공 표본에서는 기타종교활동참여와 비본질적종교성이, 덴마크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타종교활동참여, 본질적종교성 및 비본질적종교성이, 핀란드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도빈도, 본질적종교성 및 비본질적종교성이, 노르웨이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도빈도 및 스스로평가한종교성이, 스웨덴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타종교활동참여 및 본질적종교성이, 그리고 사이프러스 표본에서는 기도빈도, 스스로평가한종교성과 본질적종교성이 각각 기형아낙태허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기타종교활동빈도와 본질적종교성이, 우크라이나에서는 기도빈도와 본질적 및 비본질적종교성이, 그리고 라트비아에서는 본질적종교성이 혼전성수용도에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국가에서 이러한 종교성 지표들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응답자들일수록 기형아 낙태에 부

정적 견해를 가질 확률이 높다 하겠다. 설명변량은 2%에서 25%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남아공 2%, 덴마크 19%, 핀란드 25%, 노르웨이 14%, 스웨덴 17%, 사이프러스 8%, 러시아 6%, 우크라이나 5%, 라트비아 14%로 나타났다. 기형아낙태허용도도 북유럽국가들에서 종교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분석 대상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우르과이, 서독, 영국, 터키, 그리고 동독이다. 이들 지역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타종교활동참여,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뉴질랜

<표 10> 다중회귀분석 결과 3

DV	IV	남아공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사이프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P M S	PSV	.02	.09**	.36***	.37***	.47***	-.01	.11	.07**	.14***
	POT	.05**	.17***	.02	.01	.04	.02	.06	.03	.01
	PRY	.06**	.15***	.01	.18***	.13***	.05	.00	.09**	.18***
	RC	.04*	.02	.02	-.01	-.01	.07*	.04	.01	.09*
	ZI	.06**	.24***	.27***	.15***	.25***	.06*	.10*	.07**	.08*
	ZE	-.00	.04	.12***	-.01	.03	.06	.07	-.00	-.08*
	SX:M	-.08***	.01	.08**	.08**	.04	-.06*	.07	.00	-.04
	AGE	.18***	.01	.04	.06*	-.05*	.50***	.39***	.39***	.33***
	EDU	.05**	.01	-.01	-.05	-.02	.02	.10*	.01	.06
R ²	1	.03	.29	.40	.31	.56	.15	.08	.07	.19
	2	.07	.29	.41	.32	.56	.36	.21	.22	.28
A B 1	PSV	-.04	.12***	.27***	.22***	.16**	.02	.10	.06	.04
	POT	.11***	.12***	-.01	.00	.16**	-.02	.16**	.04	.03
	PRY	-.00	.06	.09*	.12**	.06	.13***	-.03	.12***	.07
	RC	.01	.02	.01	.10*	.06	.14**	-.03	-.06	.05
	ZI	-.00	.24***	.21***	.08	.11**	.10**	.11*	.09**	.28***
	ZE	.07***	.07**	.10**	.03	-.01	-.03	.04	.08*	-.03
	SX:M	-.04	.01	.01	.06	.02	.01	.08	.07*	.10**
	AGE	.03	-.12***	-.09*	-.06	-.10**	.10**	-.03	-.03	.11**
	EDU	.08***	.04	.04	.00	-.02	.03	.02	-.04	.01
R ²	1	.02	.19	.25	.14	.17	.08	.06	.05	.14
	2	.03	.21	.26	.15	.18	.08	.07	.06	.16
사례수		3292	2004	1136	1072	1235	1000	1015	2036	1069

※ (1) 유의수준: *** $p < 0.001$, ** $p < 0.01$, * $p < 0.05$; (2) r_{tot} : 전체 표본에서 상관계수; (3) R^2 에서 1은 6개 종교성, 2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3개를 추가한 설명변량.

드 표본에서는 종교활동참여빈도,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스위스 표본에서는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타종교활동참여,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혼전성수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르과이는 기타종교활동참여빈도,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서독에서는 종교활동참여빈도와 본질적종교성이, 영국에서는 종교활동참여빈도, 기타종교활동참여빈도,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 및 비본질적종교성이, 터키에서는 종교활동참여빈도, 스스로평가한종교성, 그리고 본질적 및 비본질적종교성이 혼전성수용도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이들 변인에서 강한 종교적 성향을 보일수록 그들은 혼전성을 부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다 하겠다. 동독의 경우는 종교성 변인 어느

〈표 11〉 다중회귀분석 결과 4

DV	IV	네델 란드	뉴질 랜드	스위스	우르 과이	서독	영국	터키	동독
P M S	PSV	.30***	.25***	.21***	.02	.13**	.16***	.07**	.15
	POT	.07**	.01	.07*	.17***	.06	.08**	-.04	.09
	PRY	.28***	.27***	.13***	.13***	.06	.14***	.00	.03
	RC	-.05*	.04	.06	.01	-.01	-.02	.11***	.07
	ZI	.26***	.23***	.17***	.11**	.18***	.28***	.16***	.11
	ZE	.02	.03	.02	.03	.04	.06*	.10***	.01
	SX:M	.03	.05*	.06	.00	-.00	.01	-.06*	.03
	AGE	-.01	.14***	.09**	.12***	.05	.20***	.06*	.11*
	EDU	-.02	.04	.04	-.03	.04	.00	-.03	-.04
R ²	1	.57	.50	.26	.14	.13	.32	.11	.14
	2	.57	.52	.27	.15	.13	.36	.11	.16
A B 1	PSV	.21***	.16**	.15***	.11*	.03	.12**	.08**	.21**
	POT	.05	-.06	.12**	.02	.10*	.07*	.03	-.14*
	PRY	.27***	.12**	.13**	.05	.08	.13***	-.14***	.10
	RC	.04	.07	.08*	.02	.02	-.01	.08**	.03
	ZI	.20***	.23***	.13***	.24***	.19***	.21***	.05	.13*
	ZE	.01	.06	-.06	-.04	.11**	.06	.20***	.08
	SX:M	-.03	-.01	.02	.09**	-.01	.04	-.02	.03
	AGE	-.11***	-.09**	-.08*	-.16***	-.07	-.01	-.06*	-.07
	EDU	-.03	.02	-.01	-.06*	.05	.01	.02	-.11*
R ²	1	.41	.22	.17	.09	.13	.19	.10	.12
	2	.43	.22	.18	.12	.13	.20	.10	.13
사례수		1951	1027	1229	1010	1182	1986	1453	524

※ (1) 유의수준: *** $p < 0.001$, ** $p < 0.01$, * $p < 0.05$; (2) r_{tot} : 전체 표본에서 상관계수; (3) R^2 에서 1은 6개 종교성, 2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3개를 추가한 설명변량.

것도 혼전성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네덜란드 표본에서만 스스로평가한 종교성은 독특하게 혼전성수용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종교성 변인들이 공동으로 설명한 혼전성수용도 변량은 네덜란드 57%, 뉴질랜드 50%, 스위스 26%, 우르과이 14%, 서독 13%, 영국 32%, 터키 11%, 동독 14% 등으로서 이들 지역에서 종교성 변인들이 혼전성수용도에 대해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특히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그 설명력이 대단히 높은 상태였다.

기형아낙태허용도 변인과 관련하여,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표본에서는 공히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그리고 스위스 표본에서는 비본질적종교성을 제외한 5개 종교성 변인들이 모두 기형아낙태허용도에 정적 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르과이에서는 종교활동참여빈도와 본질적종교성이, 서독에서는 기타종교활동참여빈도와 본질 및 비본질적종교성이, 영국에서는 종교활동참여빈도, 기타종교활동참여빈도,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터키에서는 종교활동참여빈도, 기도빈도, 스스로평가한종교성, 그리고 비본질적종교성이, 동독에서는 종교활동참여빈도와 본질적종교성이 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기형아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 변인들의 설명력은 각각 네덜란드 41%, 뉴질랜드 22%, 스위스 17%, 우르과이 9%, 서독 13%, 영국 19%, 터키 10%, 동독 12%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종교성 변인들은 기형아낙태허용도의 설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다.

이상의 다중회귀분석결과들을 요약한 것이 <표 12>와 <표 13>이다. 혼전성수용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스스로 평가한 종교성만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동아시아(일본과 대만)에서는 상대적으로 종교성이 혼전성수용도에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는 아직도 혼전성수용도와 같은 개인들의 태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분석결과 확인되었다. 34개 국가 가운데 30개 국가에서 본질적종교성은 혼전성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종교서비스참여빈도는 21개 국가, 기도빈도는 23개 국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의 종교적 성향을 알면 혼전성태도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들의 종교성은 그들의 혼전성태도를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특히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도빈도, 그리고 본질적종교성이 혼전성태도 예측에 있어 매우 유용한 변인들임이 확인되었다(기타종교활동참여, 스스로평가한종교성, 비본질적종교성도 제법 여러 나라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연령이 혼전성태도의 예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29개 국가에서 개인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전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은 34개 국가 가운데 13개 국가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들에 비해

여성(회귀분석에서 생략된 범주)들이 혼전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²⁷⁾ 그리고 교육수준은 9개 국가에서 혼전성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현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혼전성수용도에 가장 유용한 선행변인은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혼전성수용도와 관련하여 본질적종교성이나 종교서비스참여빈도, 기도빈도와 같은 종교성 변인들은 개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넘어서 혼전성수용도에 유의미한 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표본에서 종교성의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났던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세속화의 결과 때문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동아시아)의 문화적 풍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특수성의 가설이 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표 12〉 다중회귀분석결과 요약(종속변인: PMS)

	종교성 변인						통제변인			R ²	
	PSV	POT	PRY	RC	ZI	ZE	SEX	AGE	EDU	R ₁ ²	R ₂ ²
한국				*			—**	***		.09	.19
일본			***		*		—*	***	***	.14	.26
대만			*		***		—***	***		.08	.24
오스트리아		*			***					.08	.09
벨기에	***	**	**		***			***		.25	.28
칠레	***	**	*		***			**		.14	.19
체코		**	***		***			***		.23	.27
도미니코	***		***	**			—***	***		.05	.07
프랑스	***		***		***	*		***		.29	.32
아일랜드	***	*	***	***	***			***	***	.25	.30
멕시코		**	***		***	***	—**	***	**	.19	.22
필리핀							—***	***	*	.01	.04
포르투갈	***				***		—***	***	***	.17	.26
슬로바키아	***				***			***		.18	.22
슬로베니아		***	**		***	***		***		.19	.20
스페인	***	*	***	**	***	*		***	***	.22	.30
미국	***		***		***	*		***	—**	.32	.33
남아공		**	**	*	**		—***	***	**	.03	.07
테마크	**	***	***		***					.29	.29

27) 성별 변인은 모조변인(dummy variable)으로 만들어 다중회귀분석에 삽입하였고 생략된 범주는 '여성'이었다. 그래서 계수의 ±부호는 여성에 비한 남성의 상대적 값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의도 앞에 있는 '-'부호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혼전성수용도에서 낮은 점수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혼전성수용도 변인에서 '낮은 점수'는 혼전성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의미한다.

핀란드	***				***	***	**			.40	.41
노르웨이	***		***		***		**	*		.31	.32
스웨덴	***		***		***			_*		.56	.56
사이프러스				*	*		_*	***		.15	.36
러시아					*			***	*	.08	.21
우크라이나	**		**		**			***		.07	.22
라트비아	***		***	*	*	_*		***		.19	.28
네델란드	***	**	***	*	***					.57	.57
뉴질랜드	***		***		***		*	***		.50	.52
스위스	***	*	***		***			**		.26	.27
우르과이		***	***		**			***		.14	.15
서독	**				***					.13	.13
영국	***	**	***		***	*		***		.32	.36
터키	**			***	***	***	_*	*		.11	.11
동독								*		.14	.16
유의미국가 및 R ² 평균	21	14	23	9	30	9	13	29	9	.21	.26

크로아티아와 북아일랜드는 자료 누락으로 제외됨

R²은 종교성변인들만의 R², R₂²은 R₁² + 사회인구학적변인의 추가 설명변량

유의수준: *** p<0.001, ** p<0.01, * p<0.05

기형아낙태허용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표본에서는 본질적종교성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순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본질적종교성이 기형아낙태허용도에 34개 국가 가운데 28개 지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종교서비스참여빈도는 20개 국가에서, 기도빈도는 18개 국가에서, 기타종교활동참여도와 비본질적종교성은 12개 국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들은 종교성이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형아낙태문제와 같은 사회적 쟁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종교성과 사회적 태도 간 낮은 관계는 세속화의 결과라기 보다는 우리 특유의 문화적 풍토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성별은 13개 국가에서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기형아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연령은 역시 13개 국가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기형아낙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다.

〈표 13〉 다중회귀분석결과 요약(종속변수: AB1)

	종교성 변인						통제변인			R ²	
	PSV	POT	PRY	RC	ZI	ZE	SEX	AGE	EDU	R ₁ ²	R ₂ ²
한국					***	_*			***	.05	.07
일본							*		*	.01	.04
대만	*		***		***		***		***	.05	.07
오스트리아		*			**					.04	.04
벨기에	***		*		**		*			.09	.10
칠레			**		***	*	**			.05	.06
체코	*				***	*				.10	.10
도미니코								*		.01	.01
프랑스	***	**	***	*	***		***			.20	.21
아일랜드	***		**	***	***	**	*			.18	.18
멕시코		*			***	***				.17	.17
필리핀			*				**			.01	.02
포르투갈	*	***		*	***					.09	.09
슬로바키아	***		***		***		*			.23	.24
슬로베니아			***		**	**	*		**	.10	.11
스페인	***			*	***		***	_***		.10	.12
미국	***		**	***	***			_***		.16	.18
남아공		***				***			***	.03	.03
덴마크	***	***			***	**		_***		.19	.21
핀란드	***		*		***	**		_***		.25	.26
노르웨이	***		**	*						.14	.15
스웨덴	**	**			**			_***		.17	.18
사이프러스			***	**	**			*		.08	.08
러시아		**			*					.06	.07
우크라이나			***		**	*	*			.05	.06
라트비아					***		**	**		.14	.16
네델란드	***		***		***			_***		.41	.43
뉴질랜드	**		**		***			_***		.22	.22
스위스	***	**	**	*	***			_*		.17	.18
우르과이	*				***		**	_***	_*	.09	.12
서독		*			***	**				.13	.13
영국	**	*	***		***					.19	.20
터키	**		_***	**		***		_*	_*	.10	.10
동독	**	_*			*					.12	.13
	20	12	18	9	28	12	13	13	7	.12	.13

크로아티아와 북아일랜드는 자료 누락으로 제외됨

R₁²은 종교성변인들만의, R₂²은 사회인구학적변인의 추가 설명변량

유의수준: *** p<0.001, ** p<0.01, * p<0.05

V. 요약 및 결론

앞에서 진술한 것처럼, 필자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개인들의 종교성 변인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태도들을 설명하려 시도해왔다. 분석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다소 아쉬운 양상을 보여주었다. 개인들의 종교성이 그들의 사회적 태도 및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 정도는 미약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결과를 현대사회의 세속화 경향(세속화가설)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독특성(특수성가설)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없어서 이 결과들에 대한 해석은 개인적인 논리적 상상력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실시된 전세계 36개국에서 시행된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는 이러한 명제를 검증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36개국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종교성 6개 변인(종교활동참여빈도, 기타종교활동참여빈도, 기도빈도, 스스로평가한종교성, 본질적종교성, 비본질적종교성)과 사회적 태도(생활만족도, 혼전성수용도, 혼외성수용도, 기형아낙태허용도, 빈곤낙태허용도, 종교간결혼수용도)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일단은 세속화 가설은 부분적으로²⁸⁾ 부정되었다. 즉, 다양한 사회에 대한 횡단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미약한 종교성의 영향력이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 현상인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세계적으로 종교의 영향력은 아직도 어느 정도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종교성의 영향력이 아직도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관분석에서 종교성 변인들과 생활만족도 변인 간 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나머지 혼전성수용도, 혼외성수용도, 기형아낙태허용도, 빈곤낙태허용도, 그리고 종교간결혼수용도는 종교성과 제법 높은 상관정도를 보였다. 특히 혼전성수용도와 기형아낙태허용도는 종교성

28) 세속화의 가설을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 (1) 각각의 사회에 대한 종단적 자료(longitudinal data)와 (2) 다양한 사회에 대한 횡단적 자료(crosssectional data)이다. 종단적 자료는 한 사회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종교성이 약화(세속화)되어 왔고, 그리고 종교성이 개인들의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감소(세속화)해 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을 여기서는 세속화의 시간적 차원이라 이름붙이자. 본 연구가 이용한 자료는 횡단적 자료이기 때문에 세속화의 시간적 차원을 검증해주지는 못한다. 반면 다양한 사회에 대한 횡단적 자료는 한 사회에서의 세속화(약한 종교성, 그리고 종교성의 영향력 약화)가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여기서는 이를 세속화의 공간적 차원이라 이름붙이자.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는 다양한 사회들에 대한 횡단적 자료이기 때문에 세속화의 공간적 차원만을 검증해주고 있다. 즉, 우리사회의 자료에 기초하여 약한 종교성, 그리고 종교성의 낮은 영향력을 세속화의 결과로 규정해 왔는데, 이것이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결과는 세속화의 공간적 차원을 검증해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종교성이 아직도 강하고, 또 종교성의 영향력도 사회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세속화의 가설이 부분적으로 세속화의 공간적 차원에서 부정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부분의 사회에서 개인들의 종교성이 강할수록 혼전 성(性)이나 기형아 낙태 문제에 대해 ‘옳지않다’는 태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은 상관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두 개의 종속변인(혼전성수용도와 기형아낙태허용도)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혼전성수용도와 기형아낙태허용도. 분석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두 종속변인은 종교성 변인들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성, 연령, 교육)을 통제한 후에도 혼전성수용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교활동참여빈도(21개 지역), 기도빈도(23개 지역), 본질적종교성(30개 지역)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형아낙태허용도 변인도 종교활동참여빈도(20개 지역), 기도빈도(18개 지역), 본질적종교성(28개 지역)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들의 혼전성수용도라든가 기형아낙태허용도와 같은 태도들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종교성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부분적으로 세속화 가설의 일반화(전 세계에서 보편성 확인), 즉 세속화 가설의 공간적 차원은 일단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문화에서 나타나는 세속화 현상(종교성과 사회적 태도 간 낮은 관계)은 우리문화 또는 동양문화의 독특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특수성의 가설이 잠정적으로 수용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내창, 「노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삶의 질」, 『종교연구』 (한국종교학회, 2002) 제 26집, pp.43-61.
- 정순일 · 한내창, 「종교성과 사회적 윤리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31집 가을호. 한국사회학회. 1997. pp.645-670.
- 한내창, 「우리문화에서 I/E 및 기타 종교성 척도」, 『한국사회학회』 제35집 6호. 한국사회학회. 2001. pp.193-216.
- _____. 「종교성에 대한 한 경험적 논의」, 『원불교사상』 제25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1. pp.139-157.
- _____. 「종교성과 주관적 삶의 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3집. 2006. pp.179-212.
- _____. 「종교성과 타종교와의 결혼 허용도」, 『한국사회학』 제46집 1호. 2012. pp.130-155.
- Bergin, Allen E.,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evaluation and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1983, pp.170-184.
- Grasmick, Harold G., Karyl Kinsey, and John K. Cochran, "Denomination, Religiosity, and Compliance with the Law: A Study of Adul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0, 1991, pp.99-107.
- Kalmijn, Matthijs, "Intermarriage and Homogamy: Causes, Patterns, &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998, pp.395-421.
- Larson, Lyle E. & Brenda Munro, "Religious Intermarriage in Canada in the 1980'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1, 1990, pp.239-250.
- Lazarsfeld, Paul F. & Robert K. Merton, "Friendship as a Social Process: A Substantive and Methodological Analysis," pp.18-66, in *Freedom and Control in Modern Society*, edited by M. Berger. New York: Van Nostrand. 1954.
- McCutcheon, Allan L., "Denominations and Religious Intermarriage: Trends among White Americans in the Twentieth Centur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9, 1988, pp.213-227.
- Pollner, Melvin, "Divine Relations,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1989, pp.92-104.
- Saunders, LaVell E., "The Gradient of Ecumenism and Opposition to Religious Intermarriag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17, 1976, pp.107-119.
- Tittle, Charles R. & Michael R. Welch, "Religiosity & Deviance: Toward a Contingency Theory of Constructing Effects", *Social Forces*, 61, pp.653-682.
- Werner-Wilson, Ronald Jay,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Sexual Attitude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Adolescence*, 33, pp.519-531.
- Willits, Fern K. & Donald M. Crider, "religion and Well-Being: Men and Women in the Middle Year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9, 1988, pp.281-294.

원고접수 : 2012년 11월 7일 / 1차 심사: 12월 6일 /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소개 : 한내창

① 전공 : 사회학 / 소속: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② 관심영역 : 종교사회학-종교의 배타성, 종교적 갈등, 정교와 정신건강, 종교와 친사회적 행동, 종교와 사회적 태도

③ 주요논저 : 「종교와 타종교와의 결혼허용도」, 「종교성이 사회윤리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등

④ E-mail : naechang@wku.ac.kr

Abstract

Effects of Religiosity on Social Attitudes in 36 Countries

Han, Nae Chang

Wonkwang University

I have empirically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religiosity and his/her social attitudes for the last decade. The research findings have showed weak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groups of variables(religiosity and social attitudes) in Korean samples. I have thought that it reflected the universal secularization trend or cultural specificity of Korea. Lack of empirical data for testing the hypotheses made hypothesis testing withheld. However, the data sets collected from 36 countries over the world(2008 General Social Survey) gave me an opportunity to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es. I tested the secularization hypothesis and the specificity hypothesis b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upported the specificity hypothesis rather than the secularization hypothesis. That is, it is inferred that the weak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religiosity and his/her social attitudes is due to our Korean(oriental) cultural specificity. The inference is based on the facts that one's religiosity still strongly influences his/her social attitudes in most other countries. While the spatial dimension of secularization was partly rejected in this study, we still need longitudinal data for testing the temporal(historical) dimension of secularization.

Key words : Religion, Religiosity, Secularization, Social Attitudes, Sexual Attitude, Abortion